

2014학년도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 국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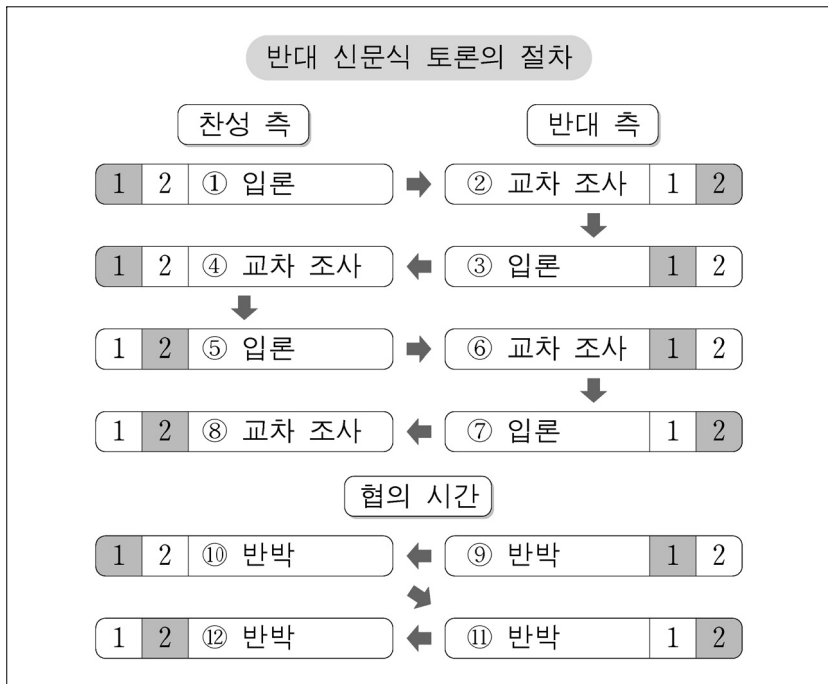
수험 번호 : (                    )                    성 명 : (                    )

1차 시험	2 교시 전공A	21문항 5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입형 [1~15]**

1. 다음은 반대 신문식(CEDA 방식) 토론의 절차를 학습하기 위해 정리한 교수·학습 자료이다. <보기>의 학생 질문에 대한 교사의 답변을 완성하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2점]



<보 기>

학생: 반대 신문식 토론의 경우 찬성 측에서 입론을 먼저 시작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토론을 하다가, 협의 시간 이후에는 순서를 바꾸어 찬성 측이 마지막으로 반박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사: 아, 그것은 주로 정책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                    ㉠                    )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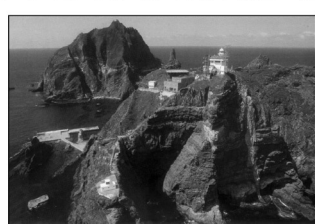

[2~3] 다음 자료는 성취 기준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다.’를 구현한 단원의 교수·학습을 안내하는 교사용 지도서의 일부이다. 자료를 보고 2번과 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1 아름다운 독도 기행**

읽기 전에

스키마 활성화를 위한 활동임. 특정 답이 있는 것처럼 유도하지 않도록 하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둘 것. (가)와 (나)의 차별점을 살릴 것.

(가) 독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말해 보자.

(나) 기행문을 읽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기행문이 설명문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아름다운 독도 기행

홍길동

새벽에 울릉도를 떠나.....

읽기 중 활동으로 소단위 독해를 위주로 하여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도록 할 것.

울릉도항의 새벽 풍경을 상상해 보자.

.....

.....

---

학습 활동

글을 다 읽은 상황이므로 대단위 독해를 위주로 하여 접근할 것. 기행문임을 염두에 두고 이 점을 의미 구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1. 이 글의 주제를 말해 보자.

2.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표를 완성해 보자.

여정	
견문	
감상	

---

**나아가기**

다음 자료들을 읽고 독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독도의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 소단원 1 전체를 구성하는 데 바탕이 된 읽기 교육 접근법을 쓰고, ‘읽기 전에’의 (나)에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스키마 유형을 쓰시오. [2점]

3. 다음 '나아가기' 학습과 관련해서 텍스트성 원리와 독서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2점]

**나아가기**

다음 자료들을 읽고 독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독도의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000년 00월 00일


**독도를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독도 영토 대책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독도 해상 국립공원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확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천연기념물 지정부터 해제하고 독도와 주변 해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 누구나 언제든지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휴양지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00 신문

**독도 자연 훼손해서는 안 돼**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이며, 일제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되찾은 상징적인 섬이라는 점에서 여느 섬과 다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어느 곳보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 경찰이 24시간 철통 경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런 섬이다. 이 섬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게 하고, 관광 수입도 올리게 하자는 취지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독도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



독도 주민

독도의 주요 어종 어획량

(자료: 국립수산물관리연구원, 2010)

<보 기>

- 하나의 대상에 대해 내용과 형식 면에서 비슷하거나 혹은 다르게 쓰인 두 개 이상의 글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관련성을 ( ㉠ )이라고 한다.
- 다양한 관점의 자료들을 비교·대조하여 읽고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는 독서 방법을 ( ㉡ ) 읽기라고 한다.

4. 다음 자료는 수업 참관 보고서의 일부이다. 수석 교사가 박 교사의 작문 수업(3시간)을 참관한 후 작성한 내용으로 보아, ㉠과 ㉡에 들어갈 작문 이론을 각각 쓰시오. [2점]

수업 참관 보고서

담당: 박○○ 선생님  
기간: 2013년 5월 13일~17일  
대상: 3학년 5반 국어 수업

선생님의 수업은 모범적인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1차시, 글쓰기 과정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나 전략을 익히는 2차시, 워크숍 중심의 협동 작문을 시도하는 3차시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나의 대단원을 재구성하여 형식 주의, ( ㉠ ), ( ㉡ ) 작문 이론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점이 좋았습니다. 차시별로 개선해야 할 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① 1차시 수업: 지나치게 모범 예문을 모방하는 측면을 강조 하였습니다. 예문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 ② 2차시 수업: 글쓰기 전략과 관련된 교사의 주도적인 설명이 너무 많았습니다. 학생들도 사고 구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면 좋겠습니다.
- ③ 3차시 수업: 모둠별로 교사가 제공한 피드백이 모둠 활동의 성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의미 협상을 통한 상호 작용에 중점을 둔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수석 교사  
홍길동

5. 다음 자료는 여러 개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 국어 단어의 발음 과정을 단계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음운 변동의 유형을 각각 쓰시오. [2점]

<p>(1) /불여우/</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불너우</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불러우]</p>	<p>(2) /꽃잎/</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꼰입</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꼰닙</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꼰닙]</p>
--	--

<보 기>

(1)과 (2)의 음운 변동 중에서 ㉠과 ㉣는 음의 ( ㉦ )이고, ㉡, ㉢, ㉤는 음의 ( ㉧ )이다.

6. 다음 자료를 보고 교사와 학생이 <보기>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 ㉠과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단, ㉠에는 문장 성분의 종류를 쓸 것.) [2점]

- (1) 영수는 내가 아는 사실을 모른다.  
 (2) 영수는 내가 결석한 사실을 모른다.

—<보 기>—

교사: 자, (1)과 (2)의 두 문장을 비교해서 말해 보세요. 특히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것 없나요?  
 민정: 혹시 두 문장 모두 관형절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교사: 맞아요. 그렇지만 두 관형절은 달라요. (1)에서는 관형절이 수식하는 피수식어가 관형절 내에서 문장 성분이 되지만 (2)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민정: 아하! (1)의 관형절에 ( ㉠ )이/가 없는데 그것이 피수식어와 같군요. 그렇다면 (1)과 같은 유형의 관형절에서는 ( ㉡ )이/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교사: 그래요. 잘 생각해 냈어요. 그것이 (2)와 같은 유형의 관형절과 다른 점이지요.

7. 다음은 국어의 음운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과 ㉡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2점]

고려 사항	예시	설명
최소 대립쌍	· 쌀: 살 · 님: 남 · 옥: 음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고 하나의 소리가 차이 남으로써 두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의 짝을 말한다.
음성적 유사성	· ‘하늘’의 ‘ㅎ’과 ‘땅’의 ‘ㅇ’	음성적으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 두 소리는 서로 다른 음운이 된다.
( ㉠ )	· ‘바다’의 ‘ㅂ’[p] · ‘어부’의 ‘ㅂ’[b] · ‘어업’의 ‘ㅂ’[p]	두 개 이상의 소리가 동일한 환경에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동형성	· ㄱ: ㅋ: ㆁ · ( ㉡ )	음운이 체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체계적 대칭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을 말한다. 예시에서 평음, 격음, 경음의 대립 양상이 연구개음뿐만 아니라 양순음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8. 다음은 반의 관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과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2점]

- 두 단어가 하나의 의미 성분에서만 대립할 때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  
 예 가. 장끼: [+ ( ㉠ )][+뺨][+새]  
 나. 까투리: [- ( ㉠ )][+뺨][+새]
- 어떤 단어가 ( ㉡ )을/를 가질 때, 일대다(一對多)의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

예

벗다	[-착용][+몸통]	[+착용][+몸통]	입다
	[-착용][+머리와 얼굴]	[+착용][+머리와 얼굴]	쓰다
	[-착용][+손]	[+착용][+손]	끼다
	[-착용][+발]	[+착용][+발]	신다

9.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보기>와 같이 접미 파생어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과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2점]

- (1) 멧쟁이, 바가지, 불그스름하다, ㉠ 잡히다  
 (2) 떡이, 얼음, ㉡ 높이다, 정답다

—<보 기>—

- 자료 (1)과 (2)를 통해 접미 파생어는 파생어의 ( ㉠ )와/과 어근의 ( ㉡ )이/가 동일한가의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과 ㉡를 통해 접미 파생어 중에는 그것이 서술어가 되는 문장의 ( ㉢ )이/가, 그 어근이 서술어가 되는 문장의 ( ㉣ )와/과 다른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10. 다음은 고려 가요의 문학사적 이해를 위해 수업에서 활용한 작품이다.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2점]

호미도 놀히언마르논  
 날ㄱ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  
 아바님도 어이어신마르논  
 위 덩더동성  
 어마님ㄱ티 괴시리 업세라  
 아소 님하  
 어마님ㄱ티 괴시리 업세라  
 - 작자 미상, 『사모곡(思母曲)』

—<보 기>—

김 교사는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통시적 안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학사의 지속과 변이를 따라가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그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모곡』이 그 좋은 예이다. 『사모곡』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전 시대의 ( ㉠ )와/과 같이 ( ㉡ ) (으)로 나눌 수 있고, 마지막 단락의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조선 시대의 ( ㉢ )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1. 다음 작품을 읽고 내용으로 보아 [A]의 ㉠과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찾아 쓰고, [A]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쓰시오. [2점]

그는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슬기로웠다. 특히 옛날 사람들의 기절(奇絶)과 위업을 사모한 나머지 강개발분해서 매양 그분들의 전기(傳記)를 읽고 곧잘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

7세 때 방의 벽에다 크게 글씨를 쓰되,  
 “항탁(項橐)이 스승이 되다.\*”  
 라고 하였고, 12세에는  
 “감라(甘羅)가 장수가 되다.”  
 라고 쓰고 ... (중략) ...

40세에 이르러 더욱 이렇다 할 성취도 못하자, “맹자는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孟子不動心].”라고 더 커다랗게 썼다. 해가 바뀔 적마다 벽면에 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벽이 온통 까맣게 되었다.

나이 일흔이 되던 해에 그의 늙은 아내가  
 “영감, 금년엔 까마귀를 안 그리우?”  
 하고 놀렸다. 민옹은 기쁜 듯이  
 “암, 써야지. 빨리 먹이나 가시오.”  
 하고 드디어 커다랗게  
 “범증(范增)이 기묘한 계책을 좋아하다.”  
 라고 쓰는 것이었다.

그러자 아내가 버럭 역정을 냈다.  
 “계책이 아무리 묘한들 장차 언제 써 볼 것이오?”  
 민옹은 허허 웃고 대답했다.  
 “옛날 강 태공(姜太公)은 팔십 세에 매처럼 떨치고 일어났  
 다오. 지금 나는 강 태공의 어린 동생뻘밖에 안 되지.”  
 ... (중략) ...

나는 민옹에게 뇌문(誄文)을 바쳐 슬퍼하노라.

아! 웅이시여,  
 기(奇)하고 괴(怪)하신 웅이시여,  
 우리를 경악(驚愕)케 하시고  
 우리를 웃고 성내게 하시고  
 또 알뜰기도 하던 웅이시여,  
 [A] 벽에 그린 ( ㉠ )은/는 ( ㉡ )이/가 되지 못하였네.  
 - 박지원, 「민옹전(閔翁傳)」

\* 항탁이 스승이 되다: 항탁은 7세에 공자(孔子)의 스승이 되었다.  
 \* 감라가 장수가 되다: 감라는 12세에 조(趙)에 사신으로 가, 조의 성(城) 다섯을 진(秦)에 바치고 진을 섬기게 했다.

[12~13] 다음 작품을 읽고 12번과 1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노주인(老主人)의 장벽(腸壁)에  
 무시(無時)로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 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山中)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얗다.

\* 잠착하다: ‘참착하다’의 원말.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똘하게 쏟아 다른 생각이 없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나)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개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끓어넘는 토방 텃마루  
 석삼 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 신경림, 「목계장터」

12. 다음은 위 시들을 이해하기 위해 두 시인의 시 세계를 비교한 것이다. ㉠과 ㉡에 들어갈, (가)와 (나)의 두드러진 표현상의 특징을 쓰시오. [2점]

	(가)	(나)
창작 연대	1930년대	1970년대
시인의 주요 관심 요소	회화성	음악성
관심 요소의 구체화	㉠	㉡

13. (나)를 시상 전개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중간 부분의 처음과 끝 어절을 쓰고, 그 중간 부분에서 (가)의 화자에게 시의 공간적 배경인 ‘방 안’이 갖는 의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시구 3가지를 찾아 쓰시오. [2점]

14. 다음 작품에서 '나'가 ㉠의 실현을 보장해 주리라고 믿고 있는 대상 중 가장 근원적인 것을 찾아 쓰고, 그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 '나'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문학적 표현 효과를 쓰시오. [2점]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나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 징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방 앓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姑母夫) 그 양반…….

뭐, 말도 마시오. 대체 사람이 어찌면 글썽…… 내 원! 신세 간대없지요.

자, 십 년 적공, 대학교까지 공부한 것 풀어먹지도 못했지요. 좋은 청춘 어영부영 다 보냈지요. 신분에는 전과자(前科者)라는 붉은 도장 찍혔지요. 몸에는 몸쓸 병까지 들었지요.

이 신세를 해 가지골랑은 굴속 같은 오두막집 단칸 셋방 구석에서 사시장철 밤이나 낮이나 눈 따악 감고 드러누웠군요.

… (중략) …

나라라는 게 무언데? 그런 걸 다아 잘 분간해서 이럴 건 이려고 저럴 건 저러라고 지시하고, 그 덕에 백성들은 제각기 제 분수대로 편안히 살도록 애써 주는 게 나라 아니요?

그놈의 것 사회주의만 하더라도 나라에서 금하질 앓고 저희가 하는 대로 두어 두었어 보아? 시방쯤 세상이 무엇이 됐을지…….

다른 사람들도 낭패 본 사람이 많았겠지만, 위선 나만 하더라도 글썽 어쩔 뻔했어! 아무 일도 다 틀리고 뒤죽박죽이지.

㉠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 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애하고 신용을 하니까 이제 한 십 년만 더 있으면 한밑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 줄 그런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 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 년 동안 예순 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십만 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꾼이니, 뭐 땡땡거리고 살 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얹전한 자리를 풀라 중매까지 서 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죄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 채만식, 『치숙(痴叔)』

15. 다음 작품을 활용하여 서사극의 기법과 극적 효과를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제시된 부분에서 주인공 '상범'이 일반 연극에서와 달리 수행하는 역할을 쓰시오. [2점]

**[앞의 줄거리]** 평범한 회사원 김상범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해 늘 이용만 당하면서 손해를 보고 산다. 우연한 계기로 사장에게 신임을 얻은 상범은 임시 사원에서 정규 사원으로 승진하고 박용자와 결혼을 결심하나 뜻밖에도 형이 박용자와 결혼하게 된 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상범: 박용자 씨하고는 얘기가 다 됐어요?

상학: 그럼. 인천에도 몇 번 놀러 왔었구. 약혼식은 생략하기루 했어. 결혼식도 간단히 하기로 하구. 그때 같이 영화 구경 간 것이 인연이 됐어. 그럼, 몸조심해라.

(상학이 걸어 나간다. 상범은 움직이지를 못한다. 잠시 그대로 서 있다.)

상범: (체념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태도로) ……이거…… 결혼 상대자를 빼앗긴 데다가 아버지 환갑잔치 비용도 내가 주선해야만 하는 팔자입니다.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저의 나이는 서른 한 살입니다. 앞으로 살아 봤자 한 20년…… 나머지 20년마저 밤낮 손해만 보는 세월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집니다. 저는 여태까지의 모든 생활을 제가 아는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해 왔습니다. … (중략) … 이 사회에선 저의 상식이 통용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물에 빠진 놈에겐 돌을 안겨 줘야겠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느니 발로 걷어차 길을 터야겠습니다. 즉 기존 상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선 새 상식을 회사에서 한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무대 좌측 사무실에 불이 켜진다. 성아미가 소파에 앉아 화장을 고치고 있다. 상범이 엽총을 들고 들어와 손질을 한다.)

아미: 조심하세요. 총알은 다 빼고 하세요?

상범: 네, 실탄은 다 뺐습니다.

… (중략) …

상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린다. 엽총을 쥔 채 상범이 받는다.)

네, 네? 성아미 씨요? 계십니다. (수화기 대신 엽총을 내밀며) 박 전무입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수화기를 준다.)

아미: 네, 저예요. 그 분이요? 경리 보는 김상범 씨예요. 괜찮아요. 네? 지금요? 아직 사장님도 계시는데…… 알았어요. 그러지요? 혼자서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네?

(수화기를 놓고 시계를 본다. 상범을 힐끔 본다. 이어 사장실로 들어간다.)

상범: (관객에게) 8개월 전에 죽은 남편을 잇을 수가 없다던 저 여자입니다. 박 전무가 전화를 하니까 대낮에 나갈 생각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이근삼, 『국물 잇사웁니다』

**서술형 [1~6]**

1. <화법과 작문>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에 관한 내용으로 수업을 하였다. <보기 1>은 '자아 개념'을 설명한 후 학습 활동에 활용한 과제이고, <보기 2>는 학생이 쓴 글의 일부이다. <보기 1>과 <보기 2>를 활용하여 '자아 개념'의 의미와 그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보기 2>를 쓴 학생의 대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하시오. [4점]

<보기 1>

**학습 목표**

대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자아를 인식하고 관계 형성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

**과 제**

다음 중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을 고려하여 자기 성찰적인 글을 써 보자.

구분	대화 방식		자아 개념
	대화 빈도	자아 노출 수준	
유형 1	많음	높음	긍정적
유형 2	많음	낮음	부정적
유형 3	적음	높음	긍정적
유형 4	적음	낮음	부정적

<보기 2>

나는 평상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주로 TV 프로그램이나 스포츠와 관련된 이야기에 한정되어 있다.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남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에 갈수록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피하게 된다. 선생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를 드러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무엇을 드러내야 할지 잘 모르겠다.

2. <보기 1>은 학생별 작문 매체에 따른 평가 결과이고, <보기 2>는 학생 3명의 작문 과정을 정리한 그래프이다. 학생 A와 B의 차이, 학생 B와 C의 차이를 각각 설명한 후에 이를 토대로 학생 A에게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하시오. [3점]

<보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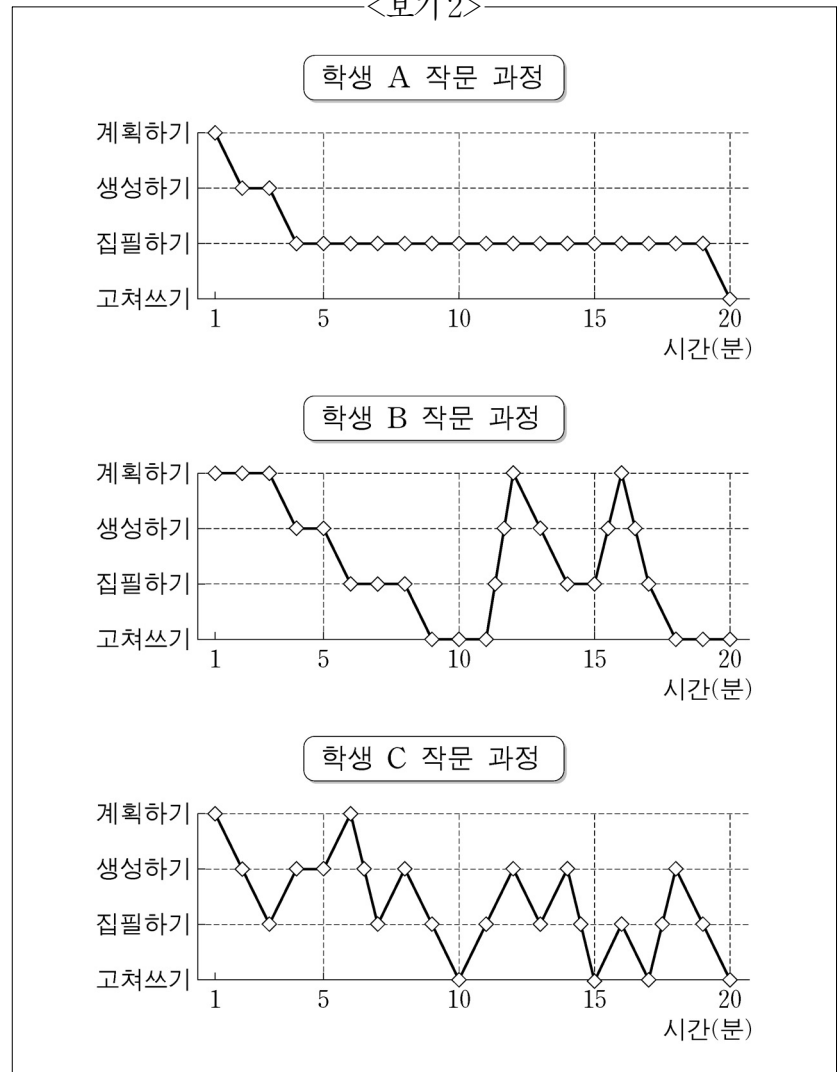
**학습 목표**

- ①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의 글쓰기 과정을 비교할 수 있다.
- ② 글쓰기 매체에 따른 글쓰기 과정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학생별 작문 매체에 따른 평가 결과**

평가 기준	학생	A	B	C
	방법	원고지 쓰기		워드 프로세서 작문
내용의 통일성		하	상	상
문단의 구성력		하	상	상
문장의 표현력		하	상	상

<보기 2>



3. 다음은 중세 국어의 ‘ㄱ’과 ‘ㄱ’이 이중 모음이었던 사실에 대하여 탐구 학습한 내용이다. 탐구 과정에 따라 분석 내용 (2)와 (3)에 준하여 (1)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3점]

학생의 질문	중세 국어에서 ‘ㄱ’과 ‘ㄱ’은 왜 이중 모음인가요?
교사의 지도 방안	중세 국어에서 ‘ㄱ’, ‘ㄱ’로 끝나는 단어들에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어떠한 형태 교체를 보이는지 주목하게 한다.
교사의 수집 자료	(1) 내해 <u>드리</u> 업도다, <u>梁은</u> <u>드리라</u> 불휘 기픈 남근, <u>根은</u> 불휘라 妖怪르된 새 오거나, <u>影은</u> <u>그르메라</u> (2) <u>스시</u> 에, <u>짜해</u> <u>디여</u> 사스미 <u>비</u> 에, <u>여회</u> 여 <u>막대</u> 에 상커나, <u>짜해</u> <u>업데</u> 여 (3) <u>프를</u> <u>쉴</u> 오 안찌니 香을 무티면 <u>香</u> 이 <u>비</u> 오 몸 아래 <u>블</u> <u>내</u> 오, <u>히미</u> <u>세</u> 오
분석 내용	(1) _____ _____ (2) 부사격 조사 {에} 및 어미 {-어}와의 결합에서 체언 또는 용언 어간이 단모음 ‘이’(스시, 디-) 또는 반모음 ‘ㅣ’(비, 여회-)로 끝나는 경우, 조사와 어미의 형태는 반모음 ‘ㅣ’가 더해진 ‘예’와 ‘-여’로 나타난다. ‘막대’와 ‘업데-’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3) 어미 {-고}와의 결합에서 용언 어간이 ‘ㄱ’(쉴-) 또는 반모음 ‘ㅣ’(비-)로 끝나는 경우, 어미의 형태는 ‘기’ 탈락된(또는 약화된) ‘-오’로 나타난다. ‘내-’와 ‘세-’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결론	중세 국어의 조사 및 어미 관련 형태 교체에서 공통적으로 ‘ㄱ’과 ‘ㄱ’이 반모음 ‘ㅣ’를 가진 이중 모음들과 함께 행동한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ㄱ’과 ‘ㄱ’은 반모음 ‘ㅣ’를 가진 하향 이중 모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다음 자료는 인칭 대명사 ‘그’와 재귀 대명사 ‘자기’의 선행 명사구 조건을 지도하기 위해 선정한 것이고, <보기>는 자료의 (1)과 (2)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선행 명사구 조건을 학생이 정리한 결과이다. 자료의 (1)과 (2)에서 ‘그’와 ‘자기’의 선행 명사구가 무엇인지 각각 쓰고, 이를 근거로 <보기>의 내용을 수정하시오. [4점]

(1) 가. 영수는 동수를 <u>그</u> 의 사무실에서 봤다. 나. 영수는 동수를 <u>자기</u> 사무실에서 봤다. (2) 가. 영수는 동수를 좋아한다. 그리고 <u>그</u> 는 순희도 좋아한다. 나. 영수는 동수를 좋아한다. *그리고 <u>자기</u> 는 순희도 좋아한다.
---

—<보기>—  
‘그’와 그것의 선행 명사구는 동일한 문장 안에 있고, ‘자기’와 그것의 선행 명사구도 그렇다.

5. 다음은 대칭 동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대칭 동사의 특성을 대칭 동사가 아닌 경우와 비교하여 <보기>의 지시에 따라 서술하시오. [3점]

(1) 가. 영수가 동수와 공원에서 만났다. 나. 영수가 동수와 공원에서 놀았다. (2) 가. 영수와 동수가 공원에서 만났다. 나. 영수와 동수가 공원에서 놀았다.
--

—<보기>—  
1. 자료의 (1)을 참고하여 필수적 부사어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고 그것의 특성을 언급할 것.  
2. 자료의 (2)를 참고하여 문장의 중의성 여부를 언급할 것.  
3. 문맥에 의한 문장 성분 생략은 고려하지 말 것.

6. 다음 시를 읽고 화자가 ‘유리’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찾아 쓰고, ‘유리’와 ‘유리에 대비되는 것들’의 내포적 의미를 각각 밝힌 후, 이를 토대로 이 시의 주제를 서술하시오. [3점]

내가 약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작은 충격에도 쉬이 깨질 것 같아 불안하다  
쨍그랑 큰 울음 한번 울고 나면  
박살 난 내 몸 하나하나는  
끝이 날카로운 무기로 변한다  
큰 충격에도 끄떡하지 않을 내가 바위라면  
유리가 되기 전까지 수만 년  
깊은 땅속에서 잠자던 거대한 바위라면  
내 마음 얼마나 든든하겠느냐  
깨진다 한들 변함없이 바위요  
바스러진다 해도 여전히 모래인 것을  
그 모래 오랜 세월 썩고 또 썩으면  
지층 한 무늬를 그리며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시 바위가 되는 것을  
누가 침을 뱉건 말건 심심하다고 차건 말건  
아무렇게나 뒹굴어다닐 돌이라도 되었으면  
내 마음 얼마나 편하겠느냐  
너는 투명하지만 반들반들 빛이 나지만  
그건 날카로운 끝을 가리는 보호색일 뿐  
언제고 깨질 것 같은 너를 보면  
약하다는 것이 강하다는 것보다 더 두렵다  
- 김기택, 「유리에게」

<수고하셨습니다.>